“먹기 조심스러워” “아직은 괜찮아”…축제 방문객 반응 교차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전남 첫 축제…광양전어축제 가보니

전어구이 판매 코너 한산…꼬치류·음료 파는 푸드트럭은 북적
“수산업계 응원해야” 전어 포장 손님 발길 속 “내년 축제 더 걱정”

27일 오후 광양시 진월면 무접섬 광장에서 열린 ‘광양 전어축제’ 공연장의 좌석들이 텅 비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전어 먹기가 꺼림직하네요”, “수산물을 먹어야 어민과 수산업계도 살지 않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전남지역 첫 수산물 축제인 ‘광양 전어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방문객은 수산물 먹기가 조심스럽다며 주저했고, 오염수 도달 시기가 아닌 만큼 실의에 빠진 어민과 수산업계를 응원해야 한다는 방문객도 많았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광양 전어축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다음날인 25일부터 이날까지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무접섬광장에서 열렸다.

광양전어축제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19사태로 열리지 못했으나 지난해 행사에는 3만여명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많은 방문객을 기대했지만 알궂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8월 24일)와 축제 일정이 맞물려 우려 속에 개막했다.

27일 낮 12시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양 전어축제 현장에서는 전어 굽는 냄새를 쉽게 맡아볼 수 없었다.

공연장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음식 부스에서는 즉석에서 전어를 구워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전어구이를 먹는 이들은 10개 테이블 중 3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도토리묵과 어묵탕, 잔치국수 등을 먹고 자리를 떠났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인근 어린이 수영장에서 놀고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먹고 있었다. 소프트콘과 꼬치류, 음료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전어구이를 판매하는 코너는 한산했다.

정형배(48·순천시)씨는 “가족들과 지난해에도 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관광객이 많이 준 것 같다”며 “올해가 오염수 방류 이후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해인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찾았다 내년부터는 오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숙희(여·67·광양시)씨는 “우리지역에서 축제가 열려 산책 겸 나섰는데, 오염수 방류된 소식에 굳이 전어를 사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둘러보고 있다”고 했다.

오후 1시 30분께 시작한 전어잡이 체험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였다. 하지만 오염수 걱정에 내년부터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연(여·38·순천시)씨는 “아이들이 지난해 행사에서 전어 30마리를 잡고 너무 즐거워해서 올해도 방문했다”며 “오염수 방류 전에 잡아놓은 전어로 알고 올해 행사에 참여했으나 내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해역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하는 시기가 먼 만큼 적극 소비해서 어민들을 응원해야 한다는 관광객도 있었다.

메인 행사장에서 약 2㎞ 떨어진 전어회와 전어구이를 판매하는 횟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12개의 횟집으로 구성된 ‘망덕자연산 횟집 협의회 상가’는 점심시간을 맞아 분주했다. 1㎏에 14마리 가량 담아 판매하는 전어 판매장에서 살아서 팔딱이는 전어를 포장해 가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어회를 사먹었다는 민철웅(49)씨는 “오염수 도달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일단은 먹어보려고 왔다”며 “먹어줘야 수산업도 살지 않겠나”라며 웃어보였다.

한 활어횟집 사장은 “오염수 방류 이후로 매출에 큰 변화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축제가 끝나고 난 뒤가 진짜 문제다. 그때는 이 거리가 썰렁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지난해와 차별화하기 위해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었고 푸드트럭도 확대했다”며 “다행히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내년 축제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광양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금이 먹어야 할 마지막 기회” 완도 전복 반짝 특수

오염수 파동 속 판매량 3배 급증
반값 가격 시름하던 상인들 화색

최근 완도군 완도읍의 전복판매점에서 손님들이 줄지어 서 구입할 전복을 고르고 있다. 〈독자 제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일 전후로 완도군에서 전복 판매량이 급증해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가 전남 앞바다까지 도달하기 전 청정바다에서 키운 전복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전국에서 완도 전복을 구매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완도 현지 전복 소매상들은 최근 전복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해 전복 가격이 반토막 나 시름이던 차에 뜻하지 않은 기회가 온 것 같다며 화색을 보이고 있다.

완도에서 전복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정연(여·45)대표는 오염수 방류 사흘 전부터 매출이 급증해 “때 이른 추석을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일 이전까지만 해도 전복 1㎏들이 한 상자가 하루 100개씩 팔렸는데, 오염수 방류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하루 300여개씩 팔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것은 물론, 아침마다 전복을 사려는 손님들이 매장에 가득 찾아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는 것이다.

다른 전복판매점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전복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복 소비자들이 갑자기 늘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소비자가 줄어들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당장 명절까지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복 소매상들은 전복 인기가 커지는 만큼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반짝 인기가 시들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전복이 아예 안 팔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복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터라 최근 반짝 매출 상승이 연매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전복 산지 가격은 큰 전복(㎏당 8마리) 기준으로 지난해 7월 4만 2609원에서 올해 7월 2만 3217원으로 45.5% 급락했다.

유 대표는 “IMF때도 타격이 적었던 것이 전복 장사인데,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잇따라 타격을 입으니 이렇게 사업이 불안정한 건 4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며 “오염수가 전남 앞바다까지 오는 데 수년 걸린다고 하니, 최소한 그동안 전복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완도=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간호사에 환자 사망 확인 지시한 의사 벌금형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 용무로 병원 밖에 머물면서 환자가 숨졌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고용한 의료법인은 당직 의사의 근무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당직 의사의 이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재중이면 다른 대직자에게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A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친 폭행 숨기려 4일간 감금한 30대 징역형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여자친구를 거듭 폭행하고 4일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감금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광주시 광산구에서 동거중인 여자친구 B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5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는 B씨가 깨우자 화가나 B씨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멍 때문에 폭행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협박하고 외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B씨의 멍이 없어지지 않자 지난 5월 26일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B씨의 온몸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 감금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 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3. 9. 11(월) ~ 15(금) · 전 형 일 :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4. 1. 3(수) ~ 6(토) · 전 형 일 : 2024. 1. 19(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